KOKKOS 10

2022 OCT
VOL. 247

개교70주년
70
SINCE 1952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 02-950-5401 • www.bible.ac.kr

졸업예정자 총장 초청리셉션에 참석한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학우들이 고승태홀에서 행사를 마치고 교수들과 함께 추억을 새겼다. 복음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왼쪽부터 오은주(기초교육원, 협력교수), 김원빈, 정해덕, 현우석 교수, 강우정 총장, 강규성 부총장, 최은희 학사부총장, 임지영 교수) [관련기사 4면]

험난한 앞길

공시지표 (8 월) 로 본 우리 대학의 모습

학생관련 지표는 최상급 , 교육 · 연구 , 재정지표는 최하위

우리대학은 대학정보공시센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가 지난 9 월 발표한 15 개 공시지표 중 학생 관련 3 개 지표에서는 최상위 등급을 받았으나 교육 · 연구 성과 실적을 나타내는 2 개 지표와 대학재정을 가늠하는 지표에서는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 (표 참조)

대학정보공시센터는 대학의 주요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4, 6, 8, 10 월에 학생 , 교원 · 연구 , 재정 , 교육여건 등 14 개 분야 65 개 항목 104 개 세부항목의 정보를 발표하고 있다 . 이번에 발표된 공시지표는 8 월분으로 학생관련 4 개 , 교육여건 1 개 , 교육 · 연구 성과 5 개 , 대학재정 / 교육비 관련 5 개지표 등 이다 .

우리대학은 신입생충원율 , 재학생충원율 (2 개 지표) 등 학생관련 지표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 신입생충원율은 100% 로 비교 대학 그룹인 수도권 대학 (수도권 소재 71 개 4 년제 대학 , 이하 같음) 중 3 위 (상위 4.2%) 를 차지하였으며 , 정원내 · 외 재학생충원율은 114.9%, 로 34 위 (47.9%), 정원내 · 재학생충원율은 105.3% 로 4 위 (상위 5.6%) 로 단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 그 외 상위에 속하는 지표는 전임교원 확보율 , 저역서 실적 , 국내논문 (연구재단 등재지) 실적이 있고 1 인당 교육비 지표는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

반면 최하위 지표는 전임교원 1 인당 교외연구비로 년간 3 백 82 만원인데 이는 수도권 대학 중 58 위 (하위 14.7%) 이고 , 국외논문 (SCI 급) 실적은 년간 0.06 편으로 52 위 하위 25.7% 에 위치하고 있다 . 장학금수혜율도 학생 1 인당 장학금이 120 만원으로 56 위 하위 21.1% 에 속해 있다 . 대학 재정의 여유를 말해 주는 적립금도 총 3 억 2 천 5 백여만 원으로 59 위 (하위 10.6%) 이다 .

이 같은 지표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대학의 오늘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학생관련 지표가 높게 나온 것은 우리 학우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충성하는 신실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교육 · 연구 성과 지표는 학문적인 노력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 또 장학금 , 적립금 지표는 우리 대학의 재정적인 열악함을 드러내고 있어 앞으로 더욱 보완해야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2022 년도 8 월 대학정보공시 항목별 자료]

공시 카테고리	공시항목	한국성서 대학교 (%)	수도권 (71 개 대학)			전국 (187 개 대학)		
			평균	순위 (위)	위치 (%)	평균	순위 (위)	위치 (%)
학생 (6)	신입생 충원율	100.0	93.5	3	4.2	90.6	3	1.6
	정원내 · 외 충원율	114.9	109.9	34	47.9	101.1	41	21.9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105.3	94.3	4	5.6	89.6	7	3.7
	중도탈락율	4.6	5.0	41	57.7	6.1	69	36.9
	학생 1 인당 장학금	1,201.4(천원)	1,489.3(천원)	56	78.9	1,369.8(천원)	122	65.2
	학자금 대출율	21.8	14.7	64	91.4	13.4	171	95.0
교원 · 연구 (6)	전임교원 확보율	77.2	79.5	23	32.4	81.5	74	39.6
	전임교원 1 인당 교내연구비	2,140.3(천원)	4,942.7(천원)	39	57.4	3,666.8(천원)	80	43.5
	전임교원 1 인당 교외연구비	3,822.3(천원)	68,971.9(천원)	58	85.3	53,659.8(천원)	152	82.6
	저역서 실적	0.13(건)	0.08(건)	12	17.1	0.09(건)	35	18.8
	국내 논문 (연구재단 등재지 – 후보 포함) 실적	0.62(건)	0.62(건)	27	38.6	0.57(건)	58	31.2
	국외논문 (SCI 급 /SCOUPUS 학술지) 실적	0.06(건)	0.34(건)	52	74.3	0.27(건)	140	75.3
예산 · 결산 (3)	교비회계 적립금	352,147.3(천원)	81,615,569.3(천원)	*59/66	89.4	52,356,055.3(천원)	*138/156	88.5
	입학전형료	51.9(천원)	50.9(천원)	34	48.6	38.9(천원)	146	78.9
	학생 1 인당 교육비	12,592.0(천원)	15,366.7(천원)	*38/65	58.5	15,280.4(천원)	*78/154	50.6

29 개 주요 평가지표에 관리자 선정

신입생충원율 등 주요지표 특별 관리

평가감사실 (실장 임지영) 은 대학 평가지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지표마다 관리자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임명절차를 밟고 있다 .

대학의 주요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알리미 (대교협 부설기관) 는 대학을 평가하는 주요 평가항목으로 14 개 분야에 걸쳐 모두 65 개 항목 (104 개 세부항목) 을 지정하였다 . 평가감사실은 이 중 주요 평가지표 29 개를 선정 , 특별 관리하기로 하고 김현동 기획팀장 등 모두 15 명의 관리자를 선정했다 . (별표 참조)

관리자는 담당지표의 주인으로 담당지표의 산출식을 각종 규정과 법령들을 검토하여 분명하게 정의 (定義) 하고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 담당지표의 목표 값을 전향적으로 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한 개의 지표가 평가에서 상충하게 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표값이 적용되도록 조정할 책임도 갖는다 . 평가감사실은 이번 선정된 29 개 지표에 더하여 앞으로 특별관리 지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대학의 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 지난해 47 만 6 천명이었던 대학 입학생은 2040 년에는 28 만 명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 대학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은 명약관화하며 이 경쟁에서 대학이 생존하는 길은 평가를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 보여 주는 길 밖에 없다 .

[29 개 주요 관리지표 및 관리자 명단]

부 서	담당 부서장	관리자	종 합
법인국장 정휘진	법인사무국장 정휘진	여진희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총장 직속	기획팀장 김현동	김현동	교육비 환원율 (산출식 상이)
	평가감사팀장 권순범	권순범	재학생 1 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전공 실험실습실기 과목 수업 운영비
	산학렵력단 팀장 김현동	김현동	교외연구비
일립대학 학사부총장 최은희	교학팀장 유미나	유미나	전임교원 확보율 (낮은 수) 재학생 1 인당 강의실 면적 재학생 1 인당 실험실습실 면적
		임환석	교내연구비 저역서 실적 국내논문실적 [등재 (후보) 지 논문 실적] 국외논문실적 SCI 급 논문 실적
		이소연	장학금 비율
		유다운	강사 강의료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김 희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정원내외 재학생 충원율 중도 탈락율
	취창업지원센터장 박성범	박성범	졸업생 취업률 유지 취업률
입학학업지속 지원본부장 최육열	입학관리팀장 신지수	신지수	신입생 충원율
일립 행정본부장 김중완	사무관리팀장 양희정	양희정	직원 1 인당 학생 수
		신재윤	교사 확보율
		진달래	세입 중 등록금 비율 세입 중 기부금 비율
	일립생활관부관장 조철남	조철남	기숙사 수용률
부속기관	도서관팀장 최지은	최지은	재학생 1 인당 연간 자료 구입비 재학생 1000 인당 도서관 직원수

"평생「복음전도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 촉구

졸업예정자 총장 초청 리셉션, 2년 만에 회복

▲ 간호학과 후배들의 선배의 졸업을 미리 축하하며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2022년도 졸업예정자 총장 초정 리셉션이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밀알관 고승태홀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 여파로 2년간 행사가 순탄하지 못하였는데 다시 회복돼 예전의 활기차고 훈훈한 모습 그대로를 나눈 자리였다.

리셉션은 성서학과(9월 26일_월), 영유아보육학과(27일_화), 사회복지학과(28일_수),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29일_목), 간호학과(30일_금)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개회 및 케익 커팅과 식사, 제2부 후배들의 특별순서, 학과장 인사말, 간증, 총장 권면과 성서인의 다짐 및 파송의 시간 등으로 이어졌다.

졸업예정자를 초청한 강우정 총장은 권면에서 학우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은 평생 복음전도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갖고 학교를 떠납니까?" 졸업예정자들은 첫 번째 질문에는 크게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두 번째 질문에는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강 총장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에게 붙잡힌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단이 없더라도 살아가는 동안 어느 순간에라도 자신이 복음전도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였다. 그는 이어 복음전도자로 사는 방법은 우리대학이 그동안 가르친 대로 말씀, 기도, 전도, 섬김의 네 가지를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가 있기 마련이지만 결코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문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권면하였다.

리셉션장에는 선배의 졸업을 미리 축하하는 학과 후배들의 열띤 응원이 분위기를 띄웠다. 학과 특색에 맞게 개사한 노래와 율동이 흥을 돋우었고 4년 행적을 영상으로 선보여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총장 초청 리셉션에는 전체 대상자 223명중 191명(86%)이 참석했다.

영어졸업고사 80% 합격

2022학년도 2학기 영어졸업고사가 10월 1일 오전 로고스홀에서 치러졌다. 111명이 신청하고 100명이 고사장에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80명(80%)의 학우가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이번 영어고사가 재학 중 마지막 기회인 4학년 학우 18명 중에서는 14명이 합격하였고 2학년 44명(92%), 3학년 22명(65%)이 커트라인을 가뿐하게 통과했다. 컴소(6명)와 간호학(23명)은 전원이 합격(100%)하며 저력을 보여줬다.

이광삼 목사 영주교회 담임목사 부임

이광삼 목사가 9월 30일 본교를 사임하고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영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다. 이광삼 목사는 지난 2008년 본교 교목으로 헌신해 왔으며 최근에는 입학팀과 대외협력팀 팀장으로도 일한바 있다. 통산 15년간 우리 대학에서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목사는 30일 이임 인사에서 "고락을 함께 해 온 성서공동체에 모두에게 감사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고 말하였다.

크리스천 데이 10 월 마지막 주간

각종 세미나 , 프리마켓 , 게스트 초청 무대 등

7 개 종목 체육대회는 뚝섬한강공원에서

10 월 27~28 일까지 크리스천 데이 행사가 리본 총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 종교개혁주간을 기념하여 청년세대가 종교개혁의 본질을 함께 기억하고 세상과 구별된 기독교 문화정신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

행사는 10 월 27(목) 일 오전 11 시 종교개혁 기념예배가 로고스홀에서 진행되며 학과별 전공 관련 세미나가 외부 강사를 초청해 이어진다 . 각 동아리 및 학회 홍보부스가 잔디광장에 차려지고 다양한 먹거리가 미각을 자극한다 . 총학과 외부 참여자의 프리마켓은 가을 장터의 풍성함을 , 각 전도반별 콘테스트로 서로 간 결속력과 유대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외부 게스트 초청 무대는 기독청년세대의 문화적 감성지수 증폭을 한껏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

이튿날인 28(금) 오전 11 시 부터는 뚝섬한강공원에서 체육대회가 이어진다 . 코로나 영향으로 그간 정체된 청춘의 열기를 발산시키면서 학과 단합과 공동체성 함양 의 즐거움 등을 충족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

리본총학은 이번 체육대회를 흑백전으로 준비하고 있다 . 성서와 영보가 흑팀 , 사복 , 컴소 간호가 백팀으로 나눠져 해당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 경기 종목은 총 7 개 종목으로 농구 , 피구 및 족구와 발야구가 각각 종목별 해당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축구경기는 대운동장에서 갖는다 . 그 외 줄다리기 경기가 이어지고 혼성계주 종목이 체육대회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

2023 학년도 수시모집 7.84:1

간호학과 23.90:1 로 가장 치열

▲ 도서관 3 층 면접자 대기장소에서 면접 도우미들이 봉사하고 있는 모습

우리대학교 2023 학년도 수시모집에는 204 명 모집에 1600 명이 지원 , 7.84:1(정원 내 8.08:1) 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이는 전년도 7.70:1 과 비교해 소폭 (0.14, 81 명) 상승한 기록이다 .

학과별 정원 내 경쟁률은 간호학과가 30 명 모집에 717 명이 접수하면서 23.90:1 로 제일 높았다 . 사회복지학과 7.49:1,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7.33:1 을 보였다 . 뒤이어 영유아보육학과 5.49:1 과 성서학과 1.28:1 을 나타냈다 .

유형별 경쟁은 간호학과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의 5 명 모집에 205 명이 지원하였고 경쟁률 41:1 을 보여 가장 치열한 격전장으로 떠올랐다 .

올해 수시입시 결과는 우리대학의 최근 4 년간 수시 경쟁률 (2020 년 6.80:1, 2021 년 5.48:1, 2022 년 7.70:1) 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기록이다 . 많은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지원율이 줄고 있는데 우리 대학의 소폭 상향은 매우 감사한 결과이다 .

신지수 입학관리팀장은 " 지원자 확보를 위해 모든 동문들과 재학생 그리고 성서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정성을 쏟아준 결과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 고 말했다 .

수시모집 지원자들은 오는 10 월 5~6 일 본교 면접에 참여해야 하며 합격자 발표는 29 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53 기도운동」에 465 명 참여

' 심각한 위기의 시대에 기도가 정답 '

동참하지 않은 742 명의 참여 강력 촉구

2022 년 2 학기 '기도의 해' 의 새 프로그램으로 '153 기도운동 ' 이 힘찬 출발을 했다 . '153 기도운동 ' 은 성서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1 주일에 1 번 , 5 명 내외의 그룹을 만들어 30 분간 기도하는 프로그램이다 .

10 월 4 일 현재 , 465 명 (전체 1207 명의 38%) 이 참여를 신청했다 . 참여자 구성은 재학생 356(38%, 926 명) 과 교직원 99(97%, 102 명) 이며 이는 121 개 (445 명) 그룹과 개인 20 명으로 나뉜다 .

기도는 매주 월요일 오전 8 시부터 저녁 8 시까지 교내 각 강의실과 사무실 포함 총 51 곳에서 요일별로 진행되고 있다 . 그 중 수요일이 가장 많은 45 회 , 시험주간을 제외하고 모두 8 주간 (9 월 26~11 월 25 일) 진행된다 .

교목실은 매 주마다 기도운동에 사용할 순서지를 제공한다 . 찬송 2 곡 , 성경 5 구절과 전체 기도제목이 담긴다 . 제 1 주차에는 1.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2. 성서공동체와 23 학번 수시신입생을 위한 기도가 5 분간 진행되었었다 . 이어 대표자의 기도와 서로 간 개인별 기도제목 나눔 , 자신을 위한 기도로 마친다 . 제 1 주차 기도운동에는 93.4% (431 명) 이 참석하였다 .

강규성 교목실은 "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온처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다 . 심각한 위기의 때에 믿는 자에게 이 고난을 이겨갈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 " 고 말하고 아직 동참하지 않은 742 명 (62%) 의 참여를 강력 요청하였다 .

총학생회 주관 「나다싶 정기예배」

“믿음의 동지들 되어 달라 !”

▲ 진행팀 학우들이 열정이 가득한 예배현장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

리본 총학생회 예배섬김부 (부장 김진원) 가 주관하는 「나다싶 정기예배」 가 지난 27 일 저녁 7 시 30 분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 「나다싶 예배」 는 학교 내 공적예배와 별도로 매년 총학생회가 학우들과 함께 갖는 기도회이다 .

김진원 부장의 사회로 45 명의 학우가 예배에 참여했다 . 김선교 (키퍼스처치 담임) 선교사가 ' 다시 하나님 나라 '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 김 선교사는 " 청년 세대라면 하나님의 부름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 지금은 십자가의 의로움이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위기의 시대 . 정답은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실천한다는데 있다 . 여러분은 열정세대이다 . 자신을 굳건히 세워 주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어 달라 " 고 말하였다 .

「나다싶 예배」 는 코로나로 지난 2 년간 중단되었다가 올해 재개되었으며 년 4 회 (3, 5, 9, 11 월) 갖는다 . 학우들에게 필요한 핵심 주제를 선정 , 적합한 외부 강사를 섭외하여 진행한다 . 「나다싶」 은 ' 나 다시 예배 (Worship) 하고 싶어요 ' 의 줄임말이다 .

김현광 교수
「로마서에 관한 10 가지 질문」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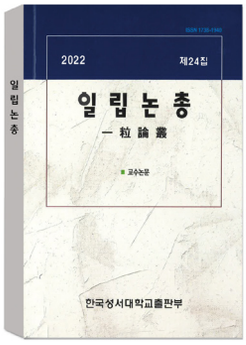
김현광 (성서학과) 교수가 「로마서에 관한 10 가지 질문」 을 출간하였다 .

로마서를 펼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쓰임 받은 수많은 민초를 떠올리게 한다 .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

저자는 개혁주의 근간을 제공한 장 칼뱅의 시선으로 책의 첫 내면을 젖힌다 . 바울의 복음전파에 대한 강렬함 , 하나님의 진노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곤고한 사람의 탄식과 이를 독자와 복선화시켜가는 과정도 진지하다 . 책은 전능자의 교훈을 고민하며 기도의 성산으로 안내해가는 여정을 10 장 안에 특징과 함께 담아냈다 . 신약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연구되는 로마서의 영적 웅장함과 아름다운 골격을 직조시켜 하나님의 의 (衣) 에 접근하도록 안내해 줄 은혜의 초대장이다 .

「로마서에 관한 10 가지 질문」 / 김현광 / 비아토르 / 318p / 19,000 원

2022 년도
「일립논총 24 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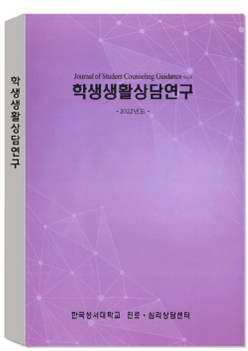


「일립논총 제 24 집」 이 발간되었다 . 올해는 우리대학 개교 70 주년의 뜻 깊은 해이며 이번 24 집에는 조윤경 (영유아보육학과) 교수의 ' 청각장애 대학생을 통한 대면 및 비대면 수업 관련 장단점과 지원방안 : K 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를 포함한 6 편의 연구논문 등이 수록됐다 .

연구논문과 저자는 다음과 같다 .

▲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대면 및 비대면 수업관련 장단점과 지원방안 : K 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조윤경
▲ 졸업예정자의 KBU 핵심역량 달성 기준 수립 연구 / 이성아
▲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조망하는 인간 이해와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관 / 김정원
▲ 대학생의 여가만족 , 수면의 질 , 정신건강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 김정원
▲ 김호식의 종말론 연구 / 유정선
▲ 구약 희년 법의 토지 무르기를 통한 가난한 자 보호 / 김정원

「학생생활상담연구」 제 8 집
진로 · 심리상담센터 발간



진로 · 심리상담센터 (센터장 최사랑) 가 「학생생활상담연구」를 발간하였다 .

이 실태조사 보고서는 소책자 형태로 2015 년부터 매해 펴냈고 올해가 8 번째 발간이다 .

이번 보고서 에는 우리 대학 2022 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 재학생 실태조사와 학생상황진단 및 마음건강실태조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

최사랑 센터장은 "「학생생활상담연구」 에 수록된 여러 결과물은 우리 대학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높이는데 필요한 내부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학생생활상담연구」 최사랑 / 한국성서대학교출판부 / 60p

모리아관 승강기 설치 노원구청 승인

시공사 (株) 이가디자인 OTIS 승강기로

우리대학교가 지난 2 일 노원구청으로부터 모리아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건축 승인을 통보 받았다 . 사무관리팀 (양희정 팀장) 은 구청의 승강기 설치 승인에 따라 관련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을 거쳐 10 월 4 일 (株) 이가디자인 (대표 이민용) 을 설치 업체로 최종 결정했다 . 이가디자인은 사무공간의 설계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 시공에 특화된 커리어를 겸비한 토탈 디자인 업체로 알려졌다 .

양희정 팀장은 " 승강기 설치 일정이 외부 여건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최소 1 개월 이상 지연된 상태이다 . 시공사 관계자와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승강기가 신속히 설치되도록 적극 협의해 갈 것 " 이라고 밝혔다 . 공사는 10 월 말쯤 승강로 구축용 터파기 공사와 함께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승강기는 OTIS 로 확정되었다 .

「기도 한 번 해보자 」 기도켐페인

최우수보고서 최현경 (사복 4) 학우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사모해 왔지만 믿음이 많이 부족한 상황 . 기도생활도 건조하였다 . 절박하고 필요한 때에만 매달려 기도하는 나는 부끄러운 신앙인이었다 .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55 일간 「기도 한 번 해보자」 는 주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소중한 기회였다 .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응하면서 5 가지 기도제목을 요일별로 정하고 올렸다 . 월요일은 한 주간을 잘 준비하면서 전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여 달라고 ,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한 가지 제목으로 간구했다 .

첫째 (화),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지속하게 해 달라고 , 둘째 (수) 는 가족끼리 배려하고 화합하며 섬겨가는 마음을 갖도록 요청하였다 . 셋째 (목),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백 , 천 , 만 선교비전을 이루도록 , 넷째 (금) 는 우리대학교가 밀알정신을 흔들림 없이 지속시켜 미래세대를 살려낼 대학으로 이끌어 달라는 것이었고 다섯째 (토) 아르바이트를 감당할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놓고 기도했다 .

나는 그렇게 매일 아침 6 시부터 30 분간 기도 습관을 펼쳐 나갔다 . 물론 쉽지 않았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교감은 깊어지고 묵상기도로 이어지는 은혜를 주셨다 . 우리 교회가 때에 맞춰 선교사 파병으로 6 개 목장까지 확장되는 응답까지 보여주셨다 .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합심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부어주심이다 . 가장 큰 응답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다 .

이번 55 일에서 기도가 일상의 호흡처럼 습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전에는 내가 육 (肉) 신에 의지한 종교생활인 모습이 많았다면 캠페인을 통해 영 (靈) 의 회복과 함께 예배와 기도에 대한 감사함으로 충만해졌다 . 내 삶 안에 기도를 실천하며 주의 제자로 서야겠다고 다짐 해 본다 .

부족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참 좋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린다 .

* 지면 사정에 따라 일부를 편집하였음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기도는 무서운 무기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서운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국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세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김호식, "기도의 선행요건" 갈멜의 소리 제 2 호 (한국성서대학교, 2002 년) 22.

2022 년 기도의 해에 저는 학우들이 힘 있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1 학기에는 '기도 한 번 해 보자'는 캠페인을 벌였고 2 학기에 들어서면서 '153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복음화를 꿈꾸며 복음전도자를 자처하는 우리가 가진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 무기는 김호식 박사의 표현대로 무서운 것입니다. 학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한복음 15:7)는 말씀도 믿으셔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약속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행 요건이 있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학우들은 '그러면 그렇지! 그게 뭔데'라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도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건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할 것 없어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것도 우리의 기도제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성서대학이 바로 그 점을 가르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올 해 기도의 해에 저는 우리 교수님들과 교직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18 살 ~20 살 젊은이들에게 누가 기도를 가르칩니까? 가르친다고 듣기나 하나요. 부모들이 기도하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칩니까? 그러나 이 시대가 이 나라가 기도의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들에게 기도를 강권(强勸)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 기도의 해를 사명감을 가지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학우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작심하고 기도한 번 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직원 컬럼
심평강 직원(대학혁신사업단)

현재의 역량

좋아하는 일을 동시에 하면 행복 수치의 측정이 불가해진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보고 싶은 웹툰 페이지를 넘겨 갈 때 행복감 수치는 전산오류급이다. 응원하는 팀의 운동경기에 시선이 몰입돼 있으면서도 입속으로 좋아하는 음식 질감이 한 가득 느껴질 때 내 전신은 꿈틀거린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취미를 나누며 도란거릴 때 그곳의 주인공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행복이 항시 유지가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그 행복을 누리고 싶은 간절함에 목말라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무척 좋아한다. 퇴근 후 풋살 경기에서 많이 웃고 있는 스스로를 자주 본다. 하지만 업무로 퇴근이 늦어 풋살을 즐기지 못할 때의 조급함과 절망감이 있는 나의 모습도 느끼게 된다. 나에게 자문해 본다. 만약 매일 풋살을 하고 있다면 그때의 조급함과 절망감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항상 행복할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자신의 업무를 완벽히 해내고 싶은 마음, 지친 마음을 달래며 놀고 싶은 속마음. 목표를 이루고 싶은 마음까지도 ...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인생 선배들은 말한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만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라는 말과 함께. 현재의 나로서는 너무 부족하기만한 인생의 경구(警句)이다.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감사와 만족함을 갖고 부족한 영역을 채워가는 마음 주시길 원한다. 현재 역량은 바닥이 보일지라도 미래 역량은 나눌 수 있을 만큼 차고 넘치길 바란다. 넘치는 양으로 일상에서의 감사와 만족함을 갖고 살아가길 원한다. 겸손을 알아가고 이는 다시 현실 사랑의 의지로 팽배해 지는 삶, 혹여 부족하더라도 삶을 사는 각자의 현재 역량에 감사하며 만족하길 소망한다.

교수 컬럼
임지영 교수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20세 컴소학과 vs. 20년차 컴소인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가 올해 20 번째 생일을 맞이한다. 2002 년 3 월에 첫 학생들이 입학하였고 나는 2003 년 3 월에 첫 강의를 시작한 20 년차 컴소인이다.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20 살 생일파티 준비를 위해 과거 자료를 하나하나 모으면서 든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5 개 학과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지만, 한국성서대학교에 정보과학부라니 ... 잘 차려진 한식 밥상에 피자가 올려진 듯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컴소가 자리 잡기까지는 낯 뜨거운 흑역사도 없지 않았다. 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영광스러운 순간도 많았다, 그 순간순간이 모여 오늘이 있기에 그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추억이다.

20 살 생일파티를 준비하며 외장하드를 뒤적여보니 2012 년 '10 주년 기념 컴소인의 밤'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날의 코코스 기사도 있었다.

11 월 2 일 재학생 52 명과 졸업생 33 명이 참석했고 당시 주임교수인 임지영교수는 "(지난 10 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은 곳이 없다. 10 살, 아직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커갈 수 있는 토양은 충분하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 모인 선배들이 다른 학부에 비해 수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씨앗이 되어 정보과학부라는 나무의 10 년 후 20 년 후에 열릴 수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였다" 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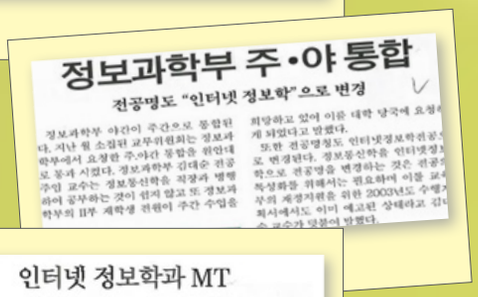
올해로 20 살이 된 우리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는 앞으로 더 크고 단단해질 10 년 후의 모습을 기대한다. 그리고 20 년차 컴소인인 나는 우리 학과 30 주년에도 학교에 있을 것이고 30 주년 기념 행사는 올해보다 더 성대하게 기획해 치루고 싶은 욕심도 함께 가져본다.

임지영 교수 신규임용

정보과학부, 응용컴퓨터학 전공

정보과학부에 임지영 교수가 새로 임용되었다. 임지영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계산학과에서 "컴퓨터시스템 및 이론"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동교 컴퓨터학과 "응용컴퓨터학"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임지영 교수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컴퓨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경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하고 싶다" 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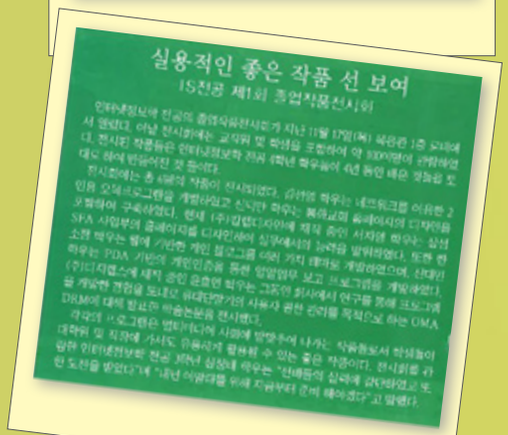


정보과학부 주·야 통합

전공명도 "인터넷 정보학"으로 변경

인터넷 정보학과 MT

신입생 포함 학과 위해 기도



실용적인 좋은 작품 선 보여

15전공 제1회 졸업작품전시회

"정보통신분야라는 거대한 선교현장의 첫 걸음"

김명훈 학우 등 10명 인턴십 시작

최정귄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갓김치, 하나님 김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에서 먹는 것을 빼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높은 하늘이 우리에게 가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요즘 저는 갓김치 먹는 맛으로 식탁이 기다려집니다. 밥솥을 열 때 김이 오른 따뜻한 흰쌀밥을 접시 위에 올리고 식탁 맞은편의 가지런히 놓인 갓김치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먹기 전부터 갓김치는 시각적으로 입안의 침샘을 맹렬하게 자극합니다. 긴 줄기의 갓을 젓가락으로 집어 더운 김이 오르는 밥 위에 올리면 흰쌀 위로는 마치 캔버스에 물감 번지듯 여기 저기 붉은 색이 칠해집니다.

갓김치의 특징은 줄기와 잎이 분명합니다. 줄기부터 먹을 때는 아삭하게 씹히며 배어나오는 약간 쓴 맛을 맛보고 그다음 더운밥을 먹습니다. 이때 치아 사이에 아삭하게 잘리는 갓 줄기의 쌉쌀한 맛이 밥맛보다 입안에서 오래 맴돕니다. 다음에는 뭉쳐있는 갓 잎을 젓가락으로 벌리고 김을 싸 먹듯이 잎 아래로 쌀밥을 감쌉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과 쌀밥을 하나로 만들어 입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스시 먹을 때 진한 와사비가 섞이 소스를 밥알이 아닌 생선위에 묻혀서 생선보다 먼저 혀에 닿도록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동일하게 더운밥보다 갓 잎이 먼저 혀에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혀에 닿을 때 맵고 차가운 듯한 느낌과 함께 더운 맛을 입안에 느끼면서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전도서 저자가 치아 활동을 맷돌질로 표현했는데, 천천히 윗니와 아랫니를 부딪쳐 가면서 막 들어온 음식을 먹습니다. 약간은 맵고 짜고 쓰면서 차고 더운 맛을 맷돌로 갈아 먹듯이 입안에서 천천히 음미하며 씹어 먹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갓김치가 밥도둑이라는 점입니다. 먹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밥을 더 먹게 됩니다. 이렇게 먹고 마지막 마무리는 비벼보는 겁니다.

갓김치는 배추와 달라서 국물이 많지 않지만 남은 밥을 충분히 비벼서 드실 수 있습니다. 밥알 하나 하나에 갓의 영향력이 다 배여 들 수 있게 비빈 후 수저를 사용해 남은 밥을 드시면 됩니다. 병원 수술 후 병상에서 투병하는 이들에게 이런 밥맛이 회복된다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전 8:15)"**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99

걱정하지 마라

김동혁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느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늘게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필사 _ 최영배 교수 (미국 Regent University)

한 해 동안 무엇이 늘었다 뒤돌아보니 침묵이 늘고 체중이 늘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는다는데, 왜 이리 걱정만 느는가?

안심이란 모든 걱정을 떨쳐 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지는 것이고, 걱정이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것이라는데, 왜 이리 마음을 편히 가지지 못하고 걱정만 늘려가는 것일까?

이제 남아있는 세 달,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려야 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하루 하루를 평안으로 채워가야겠다.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28호

제목 : 미상 작자 : 미상

이 그림과 첫 만남은 2016 년도였습니다. 토론토 미술관 (Art Gallery of Ontario) 에서 개최한 반 고호 특별전시회에서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 을 직접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반 고흐 그림과 함께 저를 사로잡은 또 다른 그림입니다.

1900 년 초 캐나다는 유럽 화풍과 다르게 캐나다의 웅장한 자연을 집중적으로 그리는 7 명의 그룹 (The Group of Seven) 이 토론토를 중심으로 결성되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색감과 단순 구조, 깊은 붓터치로 캐나다의 자연을 화폭에 담아냅니다. 그림에 표현된 드넓은 캐나다의 숲과 광야, 호수와 다양한 날씨 변화는 결국 캐나다의 존재감과 독립, 미래에 대한 꿈을 국민들에게 심겨주면서 캐나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의 그림은 복사판으로 각 가정과 학교 공공기관에 전시되어 국가의 비전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술적인 참신함과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순을 낳습니다. 그런 미술화풍이 2 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화풍이 자연에서 사람으로 변화되고 숲이나 호수에서 두 연인의 열정으로 바뀌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두 연인 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열차 안에도 빛은 있는데 사람 그림자는 없고 선로 선상에도 외로움과 고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떠나는 건지 아니면 만나는 장면인지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가방이 여인의 것인지 병사의 것인지 불확실합니다. 등에 지는 군인의 배낭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인의 것 같지만 여자의 가방치고는 커 보이고 군인의 것으로는 작아 보입니다. 안개 깔린 역과 외로워 보이는 빛, 발굽을 올린 여인의 자세와 그를 안은 군인의 손은 열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6 년 만에 다시 만난 그림 앞에서 문득 든 생각, 제게 주어진 삶을 다 살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저를 숨이 막힐 정도로 꼭 안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 10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16,695,000원)

송희경(교직원)	7,000,000원	김은혜 (동문가족)	700,000원
평안교회(황연호)	6,795,000원	신지수 (교직원)	100,000원
신성교회(이창선)	2,000,000원	유수연 (교직원)	100,000원

약정 후원자 (합계 6 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720,000원)

동문 2구좌 김동원 / 1구좌 윤현중 이성태 이성영 이사랑

일시납 누계 (2022. 3.1~9.22) 247,656,780원 / 약정자 누계 (2022. 3.1~9.22) 115구좌 / 연간납입예정액 14,040.000원

대학
어린이집

가족의 날

▲ 학교 잔디밭에서 가족의 날 행사가 열띤 호응과 함께 진행중이다.

대학어린이집에서는 지난 9 월 24 일 성서대학교 잔디밭에서 전 연령의 영유아와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윷놀이와 제기차기, 떡메치기, 비석치기 등 동적인 민속놀이와 타투 스티커 붙이기, 나무 목걸이 만들기, 포토 존, 감사나무 등의 정적인 활동이 함께 이어졌다. 다양한 놀이에 참여한 후 받은 엽전을 간식과 바꿔 먹으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을정취를 나누고 즐기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코너놀이 후에는 온 가족이 모여 릴레이 달리기 경주, 과자 따먹기 등의 레크리에이션도 참여했다.

이번 '가족의 날'을 통해 어린이집 내 가족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고 서로에게 고마움을 나누며 화목한 가정의 소중함을 체험한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감사반 노민지 교사**]

월계종합
사회복지관

김소희 사회복지사, 박지사 작업치료사 _ 지역복지유공자 표창 받아

▲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복지유공자 표창을 받은 수상자들

지난 7 일 노원구청 2 층 대강당에서 '제 23 회 사회복지의 날'이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 2 팀 김소희 사회복지사와 월계발달지원센터 박지사 작업치료사가 지역사회 복지증진 공헌을 인정받아 지역복지유공자 표창을 수상하였다.

김소희 사회복지사는 청소년의 학습역량 지원과 지지체계 구축 등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었고, 박지수 작업치료사는 지역 내 아동 청소년의 심리, 정서 치료와 발달지원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질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유리 사회복지사**]

꿈빛
어린이집

송편 빚기

▲ 유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송편을 정성스럽게 빚고 있는 모습

지난 14 일, 꿈빛어린이집은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함께 송편 빚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여러 가지 색깔의 재료를 사용한 익반죽을 사전에 준비하고 부모님 도움을 받아 설탕과 깨를 조심스럽게 넣어 송편 빚기를 시작했다. 만드는 과정에서 영아들은 서툰 솜씨였지만 손으로 직접 반죽하고 넣으면서 재료의 질감을 몸으로 익혔다. 송편이 익어가는 동안의 기다림을 거쳐 완성된 송편을 맛보며 직접 해냈다는 보람도 느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고유 명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 다양한 전통놀이 등을 알아보았다. '비석치기, 딱지치기, 강강술래' 등을 경험하며 신명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추석명절이 주는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사랑과 정을 나눈 특별한 날이었다. [**백합반 호한나 교사**]

성서
대학교회

기도하는 어머니 모임

▲ 2 학기 사랑방 모임에 참석한 성도들이 12 제자상 앞에서 함께 하였다.

성서대학교회가 9 월부터 2 학기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였다. 지난 7 일 오전 11 시 성도들이 개강 예배로 출발을 알렸고 예배 후 식사와 함께 교제의 자리를 가졌다. 2 학기에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말씀에 따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랑방 모임이 되기를 기도한다.

16 일 ~17 일에는 MIP(기도하는 어머니 모임) 를 진행되었다. 16 일은 금요기도회를 MIP 헌신예배로 드렸고, MIP 한국총괄 성나미 권사가 '자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요 ?'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17 일 (토) 에는 YIP(기도하는 청소년 모임) 강사 이현승 집사가 전체 모임을 인도하였다. [**오종철 목사**]

상계백병원
어린이집

'민속의 날' 잔치

▲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놀이를 즐기고 있는 유아

상계백병원어린이집에서는 지난 7 일 추석맞이 '민속의 날'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전통놀이와 송편, 연과 제기 만들기에 참여했다.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사방치기, 비석치기, 널뛰기, 공기놀이와 병풍 포토 존에서는 친구와 직접 사진 찍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반이 연을 만들어 놀이터에서 날렸고 직접 꾸민 팽이로는 시합을, 영아반은 제기차기에 참여했다. 이밖에 송편을 빚고 떡 도장도 찍어 만들고 만든 송편을 바로 먹거나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나누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송편을 먹으며 "내가 만든 송편이 가장 맛있다!" 만든 연을 놀이터에서 띄우고 "구름이랑 만날 것 같아요!"라며 민속의 날인 추석의 특별함을 경험했다. [**푸른반 강유나 교사**]

노원육아
종합지원센터

'행복한 우리아이 사진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

▲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아이 사진콘테스트 센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오른쪽 권정아 센터장)

우리 센터가 전국시군구육아지원센터협의회에서 주최한 '제 14 회 행복한 우리아이 사진콘테스트' 에서 센터부문 최우수상, 어린이집과 가족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의 센터부문 대상을 넘어 시상부문 전체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우리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노력과 함께 영유아 가정, 각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수상이어서 의미가 더욱 깊다.

권정아 센터장은 "사진콘테스트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과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영유아가정과 어린이집의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면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 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경 보육전문요원**]

상계 5 동
어린이집

즐거운 민속의 날

▲ 유아들이 즐거운 민속의 날에 참여해 즐기고 있는 모습

상계 5 동어린이집에서는 지난 7 일 '즐거운 민속의 날' 열린 어린이집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코로나로 학부모 참석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가능해 민속의 날 코너를 펼치게 됐다. 먼저 명절 전통체험 활동으로 '해님달님' 전래동화를 듣고 전통음식인 절편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미술활동은 팽이와 북을 만들었고 투호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비석치기 등의 놀이를 즐겼다. 유아와 교사, 학부모 모두 한복을 입고 참여했고 포토 존에서 사진을 찍고 전통의상도 경험하였다.

영유아들이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 의 의미와 전통을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학부모들도 아이들과 뜻깊게 보낼 기회였다며 가족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기다린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샛별반 조은경 교사**]

늘사랑
어린이집

아동지문인식등록

▲ 경찰관이 유아들에게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 일 노원경찰서 경찰관이 어린이집을 방문, 실종유괴 예방교육과 아동지문인식 등록을 진행해 주었다. 유아들은 며칠 전부터 경찰관의 방문 소식을 듣고 만남에 기대감을 가졌다. 경찰관은 영유아 눈높이에 맞는 시청각 자료로 실종유괴예방과 지문등록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쉽게 교육해 주었다. 영유아 모두는 교육에 집중력을 보이며 관련 영상도 잘 감상하였다. 또한 영유아 모두가 개별로 지문인식 및 사진 등록 과정까지 마쳤다.

교육 후 유아들은 경찰서 위치와 경찰 마크, 경찰관이 하는 여러 업무 등을 물었고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을 통해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경찰관 아저씨의 고마움을 느껴본 시간이 됐다. 학부모들도 자녀의 실종예방 교육과 미아로 인한 후속조치를 미리 완비하게 돼 감사하다는 인사가 이어졌다. [**즐거운반 권다은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22년 8월 21일부터 2022년 9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3,103만원(운영)	유한재단	337만원(장학)
김조자(간호학)	1,000만원(간호발전,운영)	동신장학회	283만원(장학)
송희경(외래교수)	700만원(컴퓨터소프트웨어학발전)	강화소방서	105만원(장학)
평안교회(황연호 목사)	626만원(운영,장학)	벧엘성서동우회	105만원(운영)
강우정.강진(총장)	534만원(운영)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100만원(장학)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500만원(장학)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한국장학재단	45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0.4구좌 조민영
1구좌 강애솔 김세현 김유미 김유현 박향식 심순자 윤현중 이민화 이신재 이해렬 이화연 임찬웅 조수빈 최종운 황형록
2구좌 김동원 김연정 신정섭
5구좌 이기훈 이병철
15구좌 박빛나

재학생 및 가족
1구좌 강정희

교직원 및 가족
3구좌 김창현
13구좌 한진호

성서선교회
1구좌 한금순
2구좌 금촌성서교회
5구좌 장자교회
8.3구좌 벧엘성서동우회

일 반
1구좌 이사랑 이성영 이성태 황영수
2구좌 서병준
3구좌 손승현

단체 및 기관
32구좌 평안교회(노원)
2구좌 바르고복된교회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샛별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옥경 강은해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고대운 고성호 고재민 곽미화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실 권순웅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희조 금동옥 금필규 김가영 김노아 김다솔 김다예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김선근 김성애 김세현 김수연 김순녀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유미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은 김정희 김지선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경숙 남범수 남성휘 노한나 도 만 류수진 류요한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경옥 박문홍 박성준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영근 박윤복 박은경 박재신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필종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규원 서유미 서 융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송민규 송바울 송성은 송순덕 송원복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성경 신은혜 신종수 신지은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혜영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연현숙 오찬미 오채엽 용아름 우종엽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혜자 이광석 이근중 이도훈 이두현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주희 이진리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현섭 이현지 이혜선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장희남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선도 정소윤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은경 조은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최종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황예린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황보혜영 /열매맺는교회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고난홍 고성주 구본길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미나 김미향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연주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인화 김재원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김태분 노민지 류충열 마혜진 박상수 박재송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왕용분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윤서희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아름 이영애 이우선 이유미 이유진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이현우 임수경 임은희 장은경 장재경 장재원 전수경 전영희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성진 조혜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홍진옥 홍혜주 황인숙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공지은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석환 김윤정 남정부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반세호 배예진 서명주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신연정 안정민 양연선 유아랑 이길순 이남희 이다윤 이안나 이윤성

기부자 명단

이주연 이현지 장영훈 장혜란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최선경
최소린 최양서 탁현정
4만원 김민지 박주은 배정환 송인성
신은진 이은애 임수정
5만원 길소윤 김동원 김종남 김준오
김 진 김진경 김혜진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송복순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병철 이부호
조민영 천유림 최송희
6만원 정동주
10만원 강경옥 김동관 김장교 김종숙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이기훈 장명헌
11만원 유선미
12만원 성낙표
70만원 김경화
100만원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정희 권순길 기병문 김민서
김선경 김양순 김요셉 김은주
류한나 박대종 박재숙 선동하
선유정 신연정 신영옥 심희정
안양희 양은성 양주향 엄미자
유주연 이광승 이동기 이성란
이성령 이혜진 임동화 장연정
장영철 전계화 지중배
2만원 김형태 박혜숙 서성식 송동식
여경숙 이마리 이영림 이진아
전옥순 정영숙 천광호 함은애
홍은선
3만원 김은선 김재임 배정숙 이종권
5만원 김명자 김선주 김성안 김종호
박선희 박인순 유정열 이재현
이지은 정미영
6만원 안태유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곽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유진 김종현 김지성
김지환 김지효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심평강
양승원 유성준 윤명섭 이문자
이종우 이희주 임수아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정현아
진달래 하희수 허윤민
요시다고조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윤정 고진주
구자람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봉재 김세원 김은실 김장호
김진순 문지예 민경은 박은주
박태용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전영호
정순애 정은상 정지용 조철남
최난영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권오섭 박성범 박인혁 방진희
양희정 여진희 유다운 윤혜진
이상일 이소연 추연진
5만원 구광면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신지수 유미나
이광삼 이은광 이호섭 장정순
6만원 권순범 이성아
7만원 임환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곽규상 김덕현
김도경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소정
이슬기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2만원 권경만 김웅기
13만원 김중완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이한영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23만원 이강동
25만원 임지영
35만원 최선희
534만원 강우정.강 진
700만원 송희경
1,000만원 김조자

부설기관

1만원 김옥준 김지은 이다솜 임재택
최미정 호한나
2만원 이가연 진양희
3만원 권효진 김현애 문유나 변송이
위소진 유정현 장나혜 장윤정
4만원 박미선 홍옥주
5만원 김선화 박연희 신영자 이지연
차도영
10만원 권정아 이인경 장수진 조지선
15만원 김화영 안미희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차 건
30만원 오동준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성서대학교회

9천원 이상록 이 천 정현숙 정희선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임숙정
1만8천원 고경숙 고미숙 김겸일 김덕현
김동석 김배열 김상은 김신덕
김유미 김윤선 김은미 김인영
김정숙 김지윤 김진철 김향순
김현미 김희자 김희현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은선 박이숙
박인숙 서영우 서 훈 석경순
송인희 안봉숙 오종철 윤재필
이관영 이길우 이대우 이봉호
이소정 이영진 이영희 이정숙
이정자 이종옥 장근문 장홍림
전옥순 정갑순 정도유 조영희
조정선 조현진 최영태 최용석
최인숙 한성실 허진순
2만7천원 유상호
3만6천원 김민자 김성진 김인자 박 선
박선하 박성환 박은유 박주형
양천식 양태환 용정자 유정선
유중엽 윤도진 이경신 이승림
이승우 이주현 장진희 정나영
조병하 황시온
4만5천원 김순옥 노봉환 박태수 유형창
5만4천원 강유진 김문응 김영오 김원태
민윤옥 이숙영 임용택
6만3천원 정예진
7만2천원 강규성 김일선 이윤봉 황서린
9만원 권경만 권태완 길용희 김동선
박세건 이은실 이정임 전명진
최정권 최지웅 한진호
11만원 김현석 송재철
18만원 강성훈 김웅기 최강희 최대만
최순남
28만원 허에스더
3,103만원 성서대학교회

성서선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정희 김초롱
오성군 이승학 이태학 정혜란
최영란 최영숙 한금순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우용식 이수병
강영애.신한성 이준구.안춘자
/금촌성서교회
3만원 권순호 김덕규/태광성서교회
/푸른동산교회
5만원 김옥자 김종구 이경식 한금례
/동두천성서섬김교회
/중앙성서교회원로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혜선
24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105만원 벧엘성서동우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홍성호

이레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진경숙 진효숙

일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대석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양권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김희권 노은경 류계현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민석 소아름 송수용
심재순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해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민우 이사랑
이성영 이성태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임숙자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한춘경 황영수
/계절상점/위샐러듀
2만원 강명옥 길옥석 김동석 김동우
김보경 김성래 김윤숙 서병준
서성원 우윤주 이관헌 이일신
정주아 조혜령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행복한교회
3만원 김미수 김종환 손승현 윤미선
장문석
3만5천원 박은영
5만원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서미혜 정동환
20만원 유광석.민경홍
30만원 박순정
500만원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늘푸른교회
/맘키즈푸드/목양교회
/무진인터내셔날/이음기업
/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도새기짱/동신자원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어린양교회
/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한길교회(김오권)
4만원 플랜팅시즈
5만원 가학교회/다드림교회
/미사목민교회/사랑샘교회
/상일교회/예일에드컬
/하늘누림교회
/행전교회/향기나무
10만원 (주)바다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구리중앙교회/대광교회
/두암산업(주)/만나교회
/상록교회/서부중앙교회
/성복중앙교회/소망교회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평안교회(송파)
12만원 우리회
20만원 (주)소원기건/수봉산교회
30만원 한민제일교회
75만원 동서환경(주)
100만원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105만원 강화소방서
283만원 동신장학회
337만원 유한재단
450만원 한국장학재단
626만원 평안교회(노원)

소계(20220821~20220920)
109,056,530
누계(20220301~20220920)
661,520,170